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로 거듭나자”

5대 결사 실천지침 내용과 방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월26일 범종단적인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한데 이어 지난 23일 구체적인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 계획과 지침이 발표됐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1회성의 구호로 그치지 않고 종단과 사찰, 전 종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만큼 지난 2달여 동안 전국 사찰을 비롯한 불교단체, 불자들의 잇따른 대중공사와 인터넷 의견개진방 등을 통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발표한 것이다.

조계종은 이날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선언’을 통해 자성과 쇄신 결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했다. “종교적 가르침으로 사회를 맑게 하고 종교적 감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종교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라 사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찰불사를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원 내 사찰의 불사가 용이해짐에 따른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르는 무분별한 불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종단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각종 의례 및 의식의 한글 표준화가 추진된다. 종단은 한글 통일법요집을 제작, 보급했지만 전국 사찰과 불자들은 여전히 한문으로 된 전통적인 의례와 의식에 따른 기도

종단과 사찰운영의 사부대중공동체 실천 사찰과 문화재 보호위한 불사심의 강화

각종 ‘의례와 의식의 한글 표준화’ 실현 민족 역사와 전통 바로알기 사업 전개

분명히 못 박았다.

이러 조계종은 종단과 중앙종무기관, 사부대중별로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계획 및 지침을 발표하며 결사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종단적 실천계획으로 △종단 및 사찰운영의 사부대중공동체 실천 △사찰 및 문화재 보호 위한 불사심의 강화 △각종 의례 및 의식의 한글 표준화 △민족 역사와 전통바로알기 사업 전개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종단은 사부대중공동체 실천을 위해 분기별 1회 신도대표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종단 운영 환경을 공유하고 종단 운영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문화된 ‘사찰운영위원회’ 제도를 강화해 사찰이 사부대중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러 무분별한 불사를 지양하고 조화로운 불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사 심의를 강화한다. 건축과 환경, 조경, 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적 가치가 큰 불사 뿐만 아니

부재를 경색할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역사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는 등 전통문화와 역사가 소외되고 홀대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겠다는 당찬 계획을 피력한 것이다. 종단과 전국 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이 확대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종무기관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 3가지 실천결의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자성과 쇄신 결사 기간동안 매일 아침 독경과 108배, 참선 등 수행을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월1회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자원봉사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익법인 아름다운운동행에 월보시액의 일정금액을 보시함으로써 나누며 나눔결사에 동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전국 사찰과 사부대중에 전개할



지난 23일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를 마친 뒤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오른쪽), 교육원장 현운스님(왼쪽)이 생명나눔 서명을 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23일 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사진 위). 23일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에 동참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 144일 정진 회향한 민족문화수호위 공동위원장 영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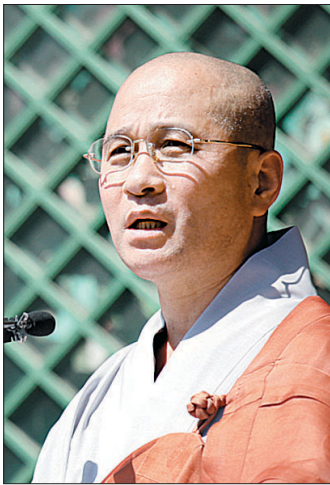
“민족문화 수호활동은 계속될 것”

“민족문화수호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과 민족문화 수호 100일 정진에 대한 큰 부담감으로 임재했지만 동참대중의 원력과 신심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는 자신감과 희망이라는 새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족문화수호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전 종도가 앞장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 영담스님(사지)은 지난 23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 회향을 맞아 100일 정진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영담스님은 지난해 12월8일 민족문화와 민생을 무시한 정부 여당의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가 결성되자 주저 없이 위원장 소임을 맡았다.

긴급 확대총무회의에서 “무릎 꿇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 보겠다”고 서원한 영담스님은 이를 뿐인 위원장이 아니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했다. 특히 영담스님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매일 오전 8시45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에서 제일 앞줄에서 죽비를 직접 치며 출선수범을 보였다.

총무원 총무부장 뿐만 아니라 부친 석왕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 종단 내 여러 소임을 맡고 있어 공직, 사직 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조정하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며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불태웠다. 지난 23일 100일 정진 회향을 맞아 실시한 제3차 1080배 정진에서도 영담스님은 제일 앞줄에서 직접 죽비를 치며 1080배 정진을 진두지휘했다.

영담스님은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민족문화수호 활동은 100일 정진 회향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의 천박한 전통문화 인식으로 출범한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현재 교구본사별 위원회 결성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자성과 쇄신 결사라는 거대한 물결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은 종단 차원에서 일찍이 없었던 경험으로 말그대로 종단적 불사임이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불사에 애정과 관심, 지원과 배려의 자세로 동참해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더 정진해갑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발전기금 출연 이행하라” 종관위, 동대이사에 촉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1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출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종관위는 “지난 2007년 ‘중앙종회 종단현안문제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는 재임기간동안 연 5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결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이사가 있다”면서 “오는 4월15일까지 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낼 것인지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동국대 이사회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경스님을 신임 종관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장명스님, 간사에 오심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종립학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했다. 박인택 기자

쌍계사 보살계 대법회

쌍계사는 1200여년 전 진감국사께서 창건한 이래 계맥의 중흥조이신 대은 금담율사께서 전통적인 계법을 전하시던 전법 도량으로써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불기2555년(2011)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쌍계사 금강계단

●일 시 : 불기2555년(2011) 4월 7일~9일(음 3월 5일 ~ 7일 까지 3일간)

◎보살계 입 재 : 4월 7일(음3월5일) 오후 2시

◎장경정대불사 : 4월 9일(음3월7일) 오전 8시

●수계금 : 사만원(₩40,000)

●접수처 : 하동 쌍 계 사(055)883-1901 부천 석 왕 사(032)663-7771
부산 혜원정사(051)866-7771 통영 연 화 사(055)641-3670
이천 행불선원(031)631-5117

●증명 : 고 산 대종사

●계 사 : 전계대화상 보광 대화상
갈마아사리 지하 대화상
교수아사리 일해 대화상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www.ssanggyesa.net

Ⓜ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경담 성조 합장

쌍계사 금강계단.

진감국사 대종탑배.